

전사 체육대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대 중학교에서 상조회 주최로 회사가 후원 한 가운데 2011년 전사 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사체육대회는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가족 참가자가 배 이상 늘어 직원들만을 위한 행사에서 직원 가족이 공유 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었다.

적극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내년 체육대회에는 보다 많은 선보인과 선보가족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는 2조인 구평공장의 활약이 돋보인 한해로 족구우승, 피구우승 및 단체 계주우승 등 3관왕을 이뤄 단체 1등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직원 외에도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나 올해는 네일아트를 처음 시도해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호응이 좋았는가 하면 아이들을 위한 상품도 금새 동이 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이 많이 늘었다.

반면 축구경기 중 한 사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어 내년부터는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필수항목으로 떠올랐다. 이경식 사우회 총무는 "미리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부터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안전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부상은 1등상, 2등상, 인기상으로 나뉘어 시상되었으며 추첨을 통해 자전거(10대), 무선 하이패스(10대), 카메라(10대), 고급 타올(50매) 등의 행운이 돌아갔다.

한편, 한 달 여 동안 체육대회를 준비한 사우회는 "온 가족이 웃으며 손잡고 떠날 때 가장 보람찼다. 체육대회를 통해 전 사원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며 "먹을거리, 용품 등을 창조해주신 협력사 업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경기인 족구, 피구 및 축구 경기와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 단체 계주 등의 경기로 구성 되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뭉돌이와 여성을 위한 링 던지기 그리고, 참석한 자녀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로 진행 되었다.

개회사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어려운 경기를 오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믿는 단합된 모습으로 헤쳐 나간다면 선보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평했다.

6회에 걸친 체육대회 가운데 가장 가족참여율이 높았던 이번 "선보 Family"에서는 구성원의 연령대도 다양해져 보다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체육대회를 주관한 김동섭 사우회 회장은 "직원참여율은 예년과 비슷 했지만, 가

선보의 신입사원 각오 한마디

- ① 설계 하은준 : 신입이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언제든지 배우고자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② 설계 정현주 : 선보 가족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③ 품질 문경준 : 신입사원의 열정으로 항상 발로 뛰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④ 설계 양창호 :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⑤ 영업 박철현 : 회사발전과 이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⑥ 개발 김재래 : 선보의 가족이 된 걸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분들한테 피해가 안갈만큼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HMD 품질 인증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5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HMD 품질 인증서를 인증받고 4월 18일 전달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용접사 자격, 검사 합격율, A/S 처리능력 등에서 100% 물을 보였으며 특히 품질개선 목표인 10건을 150% 초과하는 15건을 달성하여 5개 등급(A~E)중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매년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전 조선소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아오고 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전사 VE TFT 2차 성과발표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9일
조선업계 불황 속 생존을 위한 원가 절감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제품별 VE TFT 월동에 따른
2차 성과 발표회를 상임고문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VE TFT는 영업, 설계, 생산관리, 자재조달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품별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의견적 실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구성된 팀으로 지난 1차 성과발표에서는 각 제품별 원가분석 및 현 수준 파악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2차 성과발표회에는 총 8개팀이 각 공장별, 제품별로 원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되어 수상팀 선별이 곤란하여 최종 수상팀은 차후 성과 발표 점수를 합산하여 진행 하도록 하였다.

VE TFT팀의 활약으로 최근 지속되는 조선 경기불황 속에서 안정적인 원가경쟁력 확보로 원가절감을 현실화 할 것을 기대하

고 있으며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노동절 기념 행사 3공장 최광욱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선보 가족 모두가
함께 받는 상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2011년도 노동절 행사”에서 우리 회사 다대 3공장에 근무하는 최광욱 팀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광욱 팀장은 “뜻밖의 상을 받게 돼 영광인 한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신입사원일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훈자 받은 상이 아니라 선보 식구 모두가 함께 받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썩스럽지만 함께 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최광욱 팀장은 1993년도에 입사하여 18여 년간 근무하며 선보인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해왔다.

그는 근면,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으로 우리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현재 조선업의 표준이 된 여과기(Strainer)와 소음기(Silencer) 제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회사 발전과 국내 조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예상을 받게 됐다.

특히 최광욱 팀장은 자재관리 분야에서 몰딩, 밴딩, 용접, 사상, 조립 등 철의장 제작 및 조선기자재 제조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선·후배와 동료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수 품질의 제품 생산과 납기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타고난 근면·성실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수 제품생산에 매진하여 지금은 생산팀장의 역할을 하는 자리까지 올랐다.

금번 최광욱팀장의 국무총리상 수상은 본인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선보가족 모두의 자랑이며,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김강수 상임고문의 주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12명 우리 회사 방문



지난 4월 9일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역임하신 김강수 상임고문의 주선으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인 카이스트 대학원생 12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이 날 행사는 회사소개, 조선산업 현황, 다대 1~2공장 tour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우리회사가 지난 20여년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기술 연구분야, 경영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질문도 하였다.

또한, 다대 1~2공장 생산현장을 순회 하면서,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

품의 생산공정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번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의 당사 방문을 통해 우리 선보 패밀리를 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고 우리 선보가족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Life 추천여행지

자연과 함께 즐거움이 있는 곳!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대공원

부산인이라면 어릴 적 한번쯤 가봤을 법한 어린이대공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발걸음 하기 쉽지 않았다면 속는 셈 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어린이대공원을 한 번 둘러보라. 의외의 수확을 얻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의 달 5월, 멀리 나들이 가기에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까이 아이들 손을 잡고 초음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보길. 그럼 지금부터 가족들의 소풍장소이자 연인들의 데이트장소, 어른들의 등산 장소 등

등 여러 매력을 지닌 어린이대공원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자!

이곳은 본래 1971년 성지곡유원지로 지정되었다가 1978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오늘날의 어린이대공원이 되었다.

어린이대공원은 백양산 기슭에 위치한 수원지 주변 중심으로 편백나무와 상록침엽수 등 각종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도 자리매김했다. 피톤치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사계절 각양각색의 매력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자연이자 어른들에게는 휴식처가 된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없는 것이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회관, 교통체험관, 놀이동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회관은 아이들이 체험으로 과학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전시물이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통 체험관에서 실제 전시물을 통해 여러 가지 교통 안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그렇다고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신식 조형물과 건물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어린이대공원은 어릴 적 추억들이 아직 그대로 녹아있어 어른들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입장료 무료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된 어린이대공원으로 이번 주말 가족 나들이를 한 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Life 좋은 말

자녀에게 남겨 줘야 하는 7가지 유산

첫번째 선물 - 존경심

존경심은 숭고한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

두번째 선물 - 인내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자녀에

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라.

세번째 선물 -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주고 부모 자식간의 신뢰 관계가 확고하다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네번째 선물 - 의욕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연출하자. 부모 스스로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자녀에게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라.

다섯번째 선물 - 개성

아이들은 모두 잘 같고 닳으면 빛을 내는 보석과 같다. 그 아이만의 좋은 개성은 부모만이 잘 살릴 수 있다. 자녀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여섯번째 선물 - 배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관을 갖도록 조언해 주자. 높은 이상은 배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도전하는 것에 신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



일곱번째 선물 - 꿈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칭찬해 주자. 그것이 자녀의 꿈과 마음을 키워 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1993년 처음 공장을 설립한 이래로 총 4번의 이전을 거쳐 현재 장림에 공장을 소재하고 있는 '호성정밀'은 전 직원 11명의 소규모 정밀업체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뾰가이버'로 정평이 나있다.

우리 회사와는 공장 설립년도인 1993년부터 18년이나 연을 맺어왔다. 작년 매출 11억을 달성한 호성정밀은 우리 회사와 연매출의 15%를 거

래하고 있다.

호성정밀은 18년 동안 갖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악착같이 왔다. 사무실 한켠에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부부가 함께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밤낮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달려오면서 지금의 호성정밀을 일궈낸 것이다.

사장 부부는 힘든 시절 가족, 친지들조차 외면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최금식 대표이사와 선보에 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연 호성정밀

한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이광출 사장의 사모님은 특히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학교 회비조차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울 때 "선보의 도움이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무리 작은 공정이라도 언제든 24시간 합시대기조가 되어 가공을 할 수 있다는 호성정밀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중요시한다. 인가공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지만 'No'를 외친 적은 거의 없다. 밤늦게나 새벽에 달려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광출 사장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절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작업한다"고 했다. "한번은 선보에서 지게차 부품이 부러져 그걸 가지고 달려온 적이 있어요. 그 때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이지만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똑같이 만

들어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회사와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직원이 11명으로 단촐하지만 모두가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호성정밀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광출 사장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성장해 사업확장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 키우고 싶어도 키울 인재가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가득한 호성정밀 사장님과 사모님을 보고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나 시련에도 긍정과 미소를 잃지 않으면 밝은 날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끝으로 이광출 사장은 "앞으로도 선보와 평생 인연을 맺으며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기분 좋은 미래를 꿈꾸다!



김충기 사원

다대 3공장

금번 생생 현장의 소리의 주인공은 다대3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충기 사원이다. 입사 8기

월 밖에 되지 않은 그로서는 이번 인터뷰가 어안이 뵈뵈하기만 하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그는 긴장을 풀고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스트레이너(여과기) 용접을 하고 있는 김충기 사원은 입사한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용접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용접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입사하고 난 뒤로 더욱 일에 집중하면서 노하우를 쌓으며 열심히 일하는 그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만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려 한다"고 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할 때 만큼은 긴장을 놓지 않는 그를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2세를 위해서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일하는 그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며 기분 좋은 미래를 상상했다.

인터뷰 내내 미소를 띠며 밝은 모습을 보여 준 그는 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통한다. 말주변이 없어 주로 이야기 하는 편이라기보다는 들어주는 편이라며 쑥스러운 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렇듯 조용조용한 그의 성격과는 달리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그는 레저나 야외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결혼 후 주로 그가 주말이면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체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맞벌이를 하다보니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말이면 밀린 잠을 한꺼번에 모아 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체가 따로 없다고 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그는 설레고 뿌듯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작업을 마쳤을 때 그 성취감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의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작업반장님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니 전보다 훨씬 능력도 좋아졌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친구"라며 김충기 사원을 치켜세우며 그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꿈꾸는 기분 좋은 미래를 현실로 그려내는 것 뿐이다.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기분 좋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함께라서 힘이 납니다.



장세열 사원

다대공장

Q 이번호 칭찬릴레이 주인공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식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 혼자 잘해서 뽑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동료들과 서로 도와가며 일하다보니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팀워크가 좋은 조직은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한다. 인터뷰하는 동안 동료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며 연신 공을 동료들에게 돌린 장세열 사원, 그가 5월의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었다.

니다. 웬지모를 뿌듯함과 감사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하시는 업무와 작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2006년도에 입사해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공장에서 배관조립을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작업하는 업무라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작업장 분위기도 밝은 편이기에 즐겁게 작업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겠지만 시간업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가장 신경을 쓰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독려하며 시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어냈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Q 평소 신념이나 선보인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일의 완성도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책임감을, 업무적으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책임감을 지켜내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물론 동료들 모두를 추천하고 싶지만 굳이 한 분을 꼽으시라니 조금 난처하긴 하지만 이영근 주임을 추천합니다. 저와 마음이 잘 맞고 모든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성격입니다.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 한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다대공장

- 품질경영 최경호(5/4/19)
- 재무인사 임기봉(5/7/9)
- 자재조달 조재현(5/2/9)
- 생산 최우태(5/2/9), 신용기(5/2/9), 김종성(5/1/8), 신부찬(5/4/21), 이추록(5/4/19)
- 설계팀 송현범(5/9)
- 설계2팀 이정훈(5/31)
- 1공장 차성오(5/13), 임기봉(5/19), 송현범(5/9), 조재현(5/2/9), 차성오(5/13)
- 2공장 장상권(5/4/18), 진정현(5/4/27), 신부찬(5/4/21), 이추록(5/4/19)
- 강재반장 장상권(5/18), 진정현(5/27)
- 신덕ENG 최우태(5/2/9), 정수용(5/16)
- 신익ENG 신용기(5/2/9), 김종성(5/18)
- 우성ENG 박상주(5/21), 정한철(5/29)
- 금천산업 신부찬(5/4/21)
- 광진공업 이추록(5/4/19)

구평공장

- 설계5팀 김정식(5/20)
- 생산 최임철(5/19), 박형만(5/1), 김주환(5/11), 공금성(5/10), 여대운(5/1), 김한태(5/5), 이현철(5/21), 박주교(5/15)

영암공장

- 지디테크 박동균(5/8)
- 설계부 오종석(5/18)
- 생산부 김효희(5/17), 천타나(5/28)
- 형우산업 김영일(5/21), 박용석(5/22)
- 품질보증 서형철(5/22)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 경영지원 임기봉(5/18)
- 설계4팀 박문염(5/18)
- 기술연구소 최재호(5/2)
- 1공장 이영근(5/1), 김희규(5/23)

구평공장

- Q.A 김건우(5/1)
- 설계6팀 민병철(5/19)

영도공장

- 김진수(5/24)

Run SUNBO Run **안전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